

‘이재명호’ 출범...통합·혁신 ‘강한 민주당’ 시험대

팬덤정치 넘어 외연 확장 관심 당내 反朋정서 극복 과제 尹 정부와 관계 설정도 주목...차기 총선 승리 견인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28일 8·28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호 지도부’가 닷을 올렸다. 당내 비주류 출신인 이재명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불리는 대선 속내에 압도적 지지로 당권을 거머쥐며 대선 패배 5개월여 만에 화려하게 전면에 복귀했다.

이단 전국 선거 패배로 어수선한 민주당을 개혁해 대안 야당으로 새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당내 해계모니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계파 간 갈등을 추슬러 ‘원팀’을 만드느라 따라 이재명호의 성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재명호’ 성패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당면 과제는 당의 체질 개선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7 재보선과 올해 3·9 대선, 6·1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를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여전히 30%대를 맴도는 수준이다. 이번 전당 과정에서 저조한 호남 지역 투표율이 보여주듯 민주당을 향한 텃밭의 민심도 아직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생 위기를 돌파할 대안

과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으로 다시 인정받는 당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는 목표가 될 수 없다. 국민이 흔쾌히 선택할 정당으로 혁신, 또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해 왔다.

당의 통합도 중요한 숙제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주류세력이 ‘친문(친문재인)’에서 ‘친명(친이재명)’으로 재편됐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지만,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는 비주류 출신인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여전하다.

선거 과정에서 당원 개정을 놓고 불거진 사당화 논란은 이런 ‘반명 정서’가 언제든 당내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 대표가 임기 첫날인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마을로 향하기로 한 것도 당내 통합이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당직 인선이나 선거 공천 등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탕평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당내 통합의 관건이다.

이 대표는 “당권이 아닌 일할 기회가 필요하다. 공천 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경태·박찬대·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국회사진기자단>

공언해 왔다.

이전 지도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원’ 등이 다시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원 민주주의의 확대를 중시하는 이 대표의 철학과 ‘강성 당원’을 앞세운 이재명 사당화’를 우려하는 비이재명계 의견이 부딪힐 때 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난제로 떠오를 수 있다.

그 연장선 상에서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노선을 정할 경우 중도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팬덤 정치의 역기능을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도 이 대표가 안은 과제 중 하나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 사이 관계 설정도 관건이다.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던 대선후보가 169석 야당을 이끌게 되면서, 여야 협

치보다 갈등 양상이 부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국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앞선 ‘검수완박 정국’ 때처럼 거대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고 입법 독주에 나선다는 프레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최대치로 확실히 행사하겠다”며 “민생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

라면 적극 협력하겠지만, 집권여당의 독선·퇴행에는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의 극복이 가장 큰 숙제다.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 주변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가운데, 이 대표 본인을 직접 겨냥한 혐의를 구성하는 데 성공할 경우 정국은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대표 측이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해 온 만큼 대정부·대여 관계는 투쟁 중심으로 경색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혐의 내용에 따라서는 당내에서도 이를 계기로 반명 정서가 결집해 리더십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김·경이 수사의 빠른 마무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 대표의 첫 번째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곳이 2년 임기를 넘어 차기 대선이라는 데에는 당내 이견이 없다.

비주류로서 여의도 정치권과의 거리가 감점이자 단점이었던 만큼, 기성 정치 문법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살리면서 국회에서 경륜과 안정감을 보여주며 당내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2년간 이 대표의 장기 과제다.

2년간 굵직한 전국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임기 막바지에 열리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점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이 대표의 성패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李 사법리스크, 與 대표 공백...여야 관계 안갯속

수사 본격화 조짐 경색 가능성...변수 많아 혼돈

대선 패배로 쓴맛을 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제1야당 당수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이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 중 하나가 여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맞대결한 대선주자급 거물 정치인인 만큼 여야 관계 자체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대역(對輿) 관계를 규정할 첫 번째 변수로는 대선을 거쳐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발목을 잡았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검찰과 경찰은 그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로 이 대표를 겨냥해 왔다.

여기에 최근 법원카드 유용 의혹이 제

기된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당내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이 사가 본격화한다면 여야 관계는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지지 기반이 강성 당원인 이 대표로서는 자신과 전임 문재인 정권 수사 등에 대해 ‘야당 탄압’ 내지 ‘표적 수사’ 프레임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공산이 적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고비마다 선명성을 강조해온 이 대표 특유의 캐릭터까지 더해진다면 여야 관계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가치분 결정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 상태로

대변되는 대혼돈에 빠졌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내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외부의 적인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며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여당이 당원·당규를 정비해 새 비상대책위를 꾸리기로 했지만, 여당의 임시 지도부가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가 구심점을 잃은 여당 보다는 윤 대통령을 대어 투쟁의 직접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당분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 대립 구도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대표가 마냥 선명한 노선으로 임기 초반부터 직접 대통령령을 비롯해 여권을 향한 공세에 나서

기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지나친 강경 노선 일변도의 행보로 정국의 혼란이 이어지면 거대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내세운 실용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 대표가 강조했던 ‘유능한 야당’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실제 이 대표 측에서도 여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각을 세우기보다는 당분간 어려움에 빠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수사로 이 대표를 압박하면 법적인 대응과 야당의 민생 행보는 분리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내부의 전략으로 알려졌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9월 정기국회가 이 대표의 대역 관계 기조를 살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릭

김승남 ‘섬발전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8일 “시·도지사가 개발 대상 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섬발전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 육성·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섬발전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 역시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개발 대상 섬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섬 발전 관련 주 소시책 등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섬발전위원회와 섬 발전 관련 사업 추진 지원과 자료 조사·관리, 주민 의견 조정, 현장 전문

김승남 의원은 “1986년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 별로 추진한 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섬 개발 사업이 지역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제는 섬 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과 관계 전문가,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급선물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 한약재, 첨가물 NO!
- 홍삼성분 다량 함유 ▶ 씹살한 맛
-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6년근 1등삼 25지 ▶ 풋내가 없음
- 국산 홍삼만 사용 ▶ 느끼한 맛 없음
-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 깔끔한 맛